

8월 전북고용률 증가 실업률 하락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5%p 상승 · 실업률 1.3%p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전북지역 2016년 8월 고용률은 증가했고 실업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전북 고용률은 61.3%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5%p 상승했고 실업률은 1.3%p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됨을 보였다.

또 취업자는 9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4,000명이 증가했고 실업자는 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으로 감소했다.

실업자 성별로 보면 남자는 6,000명으로 2,000명(-28.8%), 여자는 6,000명으로 1,000명(-11.3%) 각각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5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상용근로자는 37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34만2,000명보다 늘었다.

반면에 임시근로자(16만4,000명→15만3,000명), 일용근로자(7만3,000명→6만1,000명)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16년 8월 15세 이상 인구는 15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명(0.1%)이 증가했다. 성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남자는 79만7,000명으로 1,000명(0.1%) 여자는 79만3,000명으로 300명이 각각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9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1,000명(2.3%)이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3.3%)이 감소했고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만8,000명, 여자는 37만4,000명으로 1만4,000명(-4.3%) 각각 감소했다.

활동 상태별로 보면 육아 3만3,000명으로 7,000명(-16.9%), 가사 17만6,000명으로 7,000명(-3.6%), 통학은 14만7,000명으로 1,000명(-0.3%) 각각 감소했다. /신광영기자



이젠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운동하세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이 피트니스용품의 집몰이 요가 매트, 폼롤러 등 다양한 운동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뿌리기업 장인경영 일본 연수사업 실시

전북중기청, 도내기업 대상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도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2016년도 뿌리기업 장인경영 일본연수사업을 실시한다.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뿌리기업 재직자에게 일본의 통합 생산관리기법인 장인경영 교육 및 실습 교육을 통해 통합관리가 가능한 우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연수비용의 80%내외를 지원하고 도내 뿌리관련 중소기업 과감금(대표자 제외) 이상을 대상으로 6박 7일간 시행한다.

연수는 국내에서의 2박 3일간 모노즈쿠리(장인의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제조문화) 이론교

육 및 기업견학, 전문가 팀별 지도와 일본 나고야에서 3박 4일간 현지 훈련센터 교육, 기업견학, 성과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ta.go.kr/ponbuk/index.do>)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이제 뿌리기업의 고유기술을 범용화 되었으며, 고유기술 향상만으로는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한계에 왔다"면서 "뿌리기업도 고유기술 기반의 자사의 경영지원의 낭비 최소화, 효율화, 극대화를 위한 전체적인 관리기술이 필요 하다. 도내 뿌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취업 반수생 “하반기 신입공채 재도전한다”

절반이상 '의향있다'

이미 힘겨운 취업문을 뚫고 입사했지만 신입사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취업 반수생'들이 많다. 실제로 입사 1년차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이번 하반기 신입 공채에 다시 도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입사 1년차 이내 직장인 44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경력이나 신입으로 입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1%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응답률이 56.3%로 '여성' (48%)보다 좀 더 높았다.

특히, 이들 중 32.9%는 이전에도 재직 중 신입으로 다시 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이나 신입으로 입사하려는 이유로는 '보유 경력이 어차피 짧아서' (59.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좋은 조건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43.6%), '커리어 상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26.1%), '직종을 전환할 생각이어서' (25.2%), '공백기를 줄이려고 취업했던 거라

서' (20.1%), '경력 이직보다 쉬울 것 같다' (15.4%)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2.1% (복수응답)가 '연봉이 불만족스러워서'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자은 야근 등 근무강도를 견디기 힘들어서' (32.1%), '복리후생이 불만족스러워서' (32.1%), '직무내용이 불만족스러워서' (31.2%),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 (30.8%), '직무가 적성과 맞지 않아서' (22.6%), '내인관계의 갈등이 있어서' (21.4%) 등의 이유를 들었다.

신입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의 형태는 '중견기업' (56%, 복수응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기업' (36.3%), '중소기업' (29.9%), '공기업' (27.8%), '외국계 기업' (26.9%) 순이었다. 현재의 회사에 지원했을 때보다 중요도가 높아진 고려조건은 단연 '연봉' (63.2%,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 (53.8%), '조직 문화' (38%), '직무 내용' (37.6%), '회사 위치' (32.9%), '근무강도' (32.5%), '기업 규모' (19.7%), '기업 인지도' (15.8%), '규모' (15%) 등이

있었다.

신입으로 재취업하겠다는 계획을 현재 직장 동료들에게 알렸는지에 대해서는 64.1%가 '알리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입사 1년 내의 신입사원들은 현재 회사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만족도를 점수로 물어본 결과, 평균 55.5점(100점 만점)에 불과했다. 특히, 다른 회사 신입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평균은 47.4점으로, 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평균(64.6점)보다 17점 가량 낮았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것은 올드루키의 강점이지만, 이것만으로 반드시 취업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며, "입무를 배우는 데 집중해야 할 신입 시기에 실무론 마음으로 취업 반수에 도전했다가 많은 나이, 부족한 경력 등으로 취업에 실패하고 오히려 성과마저 부진해져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결심이 섰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홍플러스 포스트 추석할인전

홍플러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41개 점포 및 온라인쇼핑에서 명절 준비로 지친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우선 '명절피로 증진 비타민 가득 과일/채소' 기획전을 전개한다. 기획전에서는 사과, 키위, 방울토마토, 무화과, 샐러드채소 황도복숭아, 허니듀메론, 햄프씨드 등 과일과 채소류를 초특가에 판매한다.

바로 곱이는 탕류(해물탕/매운탕), 동원 간편국이 삼치/고등어/꽂치/가자미, 인기 샐러드 등 다양한 간편 조리식품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명절 준비로 커진 가계부담을 줄여주고자 삼양라면 클래식(132g·6입, 3080원), 시네마 팝콘 지퍼백(380g, 4730원), 해파버스 요거트워시 플라워워시(1200g 4990원) 등에 판매한다.

명절 직후 완구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터닝메카드 카봇 파워레인저, 레고 등 인기 캐릭터 완구 모음집도 마련했다. 홍플러스는 주방놀이세트, CAT 기차세트, CAT 트럭세트, 1:14 무신조종수퍼카 등 다양한 완구를 행사카드 결제 고객들에게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홍플러스 이창수 트레이딩기획팀장은 "명절 준비로 가중된 피로와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일과 채소 간편식을 비롯해 다양한 생필품을 저렴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

백화점, 추석선물세트 매출 증가

백화점들이 올해 추석선물세트 매출 증가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1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 결과, 전체 매출은 8.6% 신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추석에는 건강 선물세트와 가공식품 및 생필품 선물세트의 인기가 높았다. 건강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보다 28.1% 늘었다. 또 김명란법으로 인해 5만원 이하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공식품 및 생필품 선물세트 매출은 16.5% 신장했다.

축산 선물세트의 경우 가격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6.5% 늘었다. 청과는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줄어 가격대가 상승했지만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한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에서 지난해보다 3.8% 매출이 증가했다. /뉴스

kt전북본부, 한센인 위한 주택리모델링 마쳐

kt전북본부(본부장 오만수)는 kt전북유선운용센터(센터장 정홍성)와 함께 지난 13일 익산 왕궁지역에 사는 한센인을 위한 주택리모델링 준공식을 가졌다.

오만수 본부장은 "국민기업 kt가 우리지역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전북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세창 한빛복지협회 전북지부장은 "kt의 꾸준한 나눔실천이 한센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kt의 나눔활동에 대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시작된 kt전북본부의 한센인 주택 리모델링 봉사는 한빛



복지협회 전북지부를 통해 선정된 한센인 주택을 대상으로 지난해 남원 보성농원 2가구, 김제 신양농원 2가구, 그리고 올해 추석을 맞이해 익산 금오농원 2가구까지 총 6가구의 한센인 주택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신광영기자

남성들의 '나' 를 위한 소비 증가... 1위는 스포츠 레저용품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는 남성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AK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2주간 30~50대 남성 고객들의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 고객 판매량 순위 1위는 스포츠/레저용품, 2위는 명품화장품, 3위는 남성

의류가 차지했다. 스포츠/레저용품 판매순위 1~10위는 모두 남성 아웃도어 가을의류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 신장률을 보면 남성의류 매출이 전년동기간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레저용품 매출은 66%, 명품화장품은 37% 각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5년 동안 남성의 '나'를 위한 소비가 아내 또는 부모님 등을 위한 소비보다 앞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AK몰 측은 설명했다.

한편 AK몰은 19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 앱 등에서 사용 가능한 10~20% 할인쿠폰과 무료배송쿠폰을 증정한다. /뉴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